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김 재구(협성대)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 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 59

본 연구는 문맥의 전개에 모순처럼 보이는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삼상 17: 56-58)이 이질적인 자료의 충돌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극적으로 교차되는 역전의 순간임을 제시하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삼상 17장 56-58절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단절을 미리 암시하며,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점을 보이려는 문학적 기교임을 주장한다.

Kim, Jae Gu A Theological Reconsideration of Saul's Ignorance of David
(1Sam 17: 55-58) 59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 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김 재구 | 협성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성경을 읽노라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맥의 연결과 흐름에서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읽는 이의 심정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이야기 속에 이러한 모순 된 사건이 하나 펼쳐진다.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 전에 사울과 다윗은 이미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울은 소년 다윗을 만나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하는 그의 신념을 들었으며, 또한 자신의 투구, 갑옷과 칼까지 다윗에게 맞추어 보았다(삼상 17: 38-39). 그것뿐인가? 이미 그 전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정신적인 발작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수금연주자로 발탁하였고, 그가 맘에 들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맡길 수 있는 병기 든 자를 삼았었다(삼상 16: 14, 21). 장수와 그의 병기 드는 자와의 밀접한 관계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삿 9: 54; 삼상 14: 1-15; 31: 4; 삼하 18: 15; 23: 37).¹⁾ 그런데

1) R. W. Klein, *1 Samuel*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3), 167쪽. 병기 드는 자들은 주로 장수들의 옆을 보좌하며 돕는 역할을 하고, 정해진 임무에 따라 칼, 창, 활과 화살, 방패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뒤부터는 이 끈끈한 관계를 뒤로하고 사울은 모든 기억이 상실된 듯이 다윗을 한 번도 부딪힌 적조차 없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처럼 대한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삼상 17: 55-58)

어느 누가 보아도 모순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영감 받은 저자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²⁾ “그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현학적인 자만은 금물이다. 명백한 모순 속에 숨어있는 깊이가 있는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신비이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풀기까지 이렇게 뒤엎힌 문맥들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 소논문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 존재하는 이러한 흐름의 부조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읽기를 제안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는 길은

등을 들고 다닌다(삼상 17: 7, 41). 그리고 장수들이 싸움을 위해 요청할 때마다 상황에 알맞은 무기를 제공하고, 장수가 쓰러뜨린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도 한다(삼상 14: 13). 또한 자신이 모시는 장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그 소망대로 그의 죽음을 돕기까지 한다(삿 9: 54; 삼상31: 4). 그러므로 병기 든 자는 가장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 2) H. Gunkel, *Genesi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395쪽; C. Westermann, *Genesis 37-50: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49쪽; John Skinner, *Genesis* (ICC), (Edinburgh: T & T Clark, 1930), 449쪽. 창세기의 문서비평을 주로 해온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 이야기 안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창 38 장의 유다-다말 이야기를 그 전후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적으로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자료로 취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재의 창세기 구조에서 그 위치가 잘못 놓여진 이야기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과 성경저자의 의도에 대한 재조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 재구, “요셉 이야기 속에서 유다-다말 이야기의 문학적 기능,” 『협성신학논단』 7 (2005), 258-98쪽. 창 26장에 나타난 이삭의 축복 이야기 또한 야곱 이야기 속에 잘못 놓여진 것이라고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다음을 보라: J. P. Fokkelmann,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Amsterdam: Van Gorcum, 1975), 114쪽.

분명 현재 형태의 사무엘서 속에서 문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질적인 자료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역사비평적인 방법이 본문을 해체함으로써 늘 우리에게 난제들을 손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듯 시대적 간극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현재의 배열을 이룬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기에 현재 형태를 깊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접근법’(Canonical Approach)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로 발전된 문학적 성서 해석법인 ‘성서간대화법’(Intertextuality; Inner-Biblical Interpretation)을 적용할 것이다.³⁾ 이 방법론은 비교 대상인 두 이야기나 텍스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들의 밀접한 연관성을 언어적, 주제적인 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사울-다윗 이야기’와 토라 속에서 ‘바로-요셉/모세/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 명백한 모순 극복을 위한 노력들

‘역사 비평학’이라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성경해석에 접맥된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각의 해결점을 제시했다. 스미스(H. P. Smith)는 1899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ICC시리즈 사무엘서 주석에서 아무리 천재적인 조화론자라 할지라도 사울의 다윗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문맥(삼상 17: 56-58)과 그 전의 이야기인 사울과 다윗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문맥(삼상 16: 14-23)은 결코 화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는 단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전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의 분석을 포기한다.⁴⁾ 그에게 있어 이러한 모순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맥카터(P. K. McCarter) 또한 이러한 불일치에 당혹스러워하며 본문 속에 존재하는 조화를 방해하는 모순점들을 제거하려 애썼던 편집자가 왜 이 부분에서는 용감하게도 이 불일치를 제거하지 않았는지를 의문스러워한다.

3)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Patricia Tull,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왕 대일, “성서해석에 있어서 Intertextuality의 활용-레 17: 11, 14의 경우,” 『구약논단』 9 (2000), 9-38쪽.

4) Henry Preserved Smith, *The Books of Samuel* (ICC), (Edinburgh: T & T Clark, 1899), 165쪽.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 군이 합쳐졌기 때문이며 사울과 다윗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이야기(삼상 16: 14-23)는 가장 오래된 전승 중에 하나라고 일축해 버린다.⁵⁾ 노쓰(R. North)는 좀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오경의 문서가설을 통해 다윗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오경의 문서는 오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까지 연결되는데 문맥의 부조화는 다윗 이야기가 세 개의 문서인 E문서(삼상 16: 1-13), D문서(삼상 16: 14-23) 그리고 J문서(삼상 17장)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⁶⁾ 피터슨(E. H. Peterson) 또한 이러한 학자들과 같은 선상에 서 있으며, 이 모순은 의심할 바 없이 그 당시에 수많은 다윗의 이야기들이 영웅담처럼 회자되고 있었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내용이나 문맥에 관계없이 지켜내려 했기 때문이라 본다.⁷⁾ 결국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문맥의 매끄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불일치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자료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명백한 모순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대답이 궁색해지고, 진화론적인 발상인 고대 저자의 원시성과 현대 학자들의 첨단화된 문명성의 극명한 대립만 남게 된다.

그 다음은 문학적 통일성이란 기초위에서 이루어진 주장들이다. 버겐(R. D. Bergen)은 사무엘서에서 열왕기하까지가 능숙한 실력을 가진 저자 겸 편집자에 의해 치밀한 문학적 통일성을 갖춘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 가지 방향의 해결점을 제시한다. 이 두 측면은 왕명의 실행이라는 면과 삼리적인 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골리앗에 대한 승리가 약속된 대로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또한 딸을 주어 사위를 삼는다는 점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부모의 이름을 캐물었다고 본다(삼상 17: 25). 그리고 둘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하면서 그의 지적인 능력이 현격한 장애를 가져왔기에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삼하 14: 20)는 것과 비교대조 되는 것으로 본다.⁸⁾ 그러나 첫 번째 견해는 사울이 이미 이새에게

5) P. Kyle McCarter, Jr., *I Samuel* (AB 8),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0), 282, 284-309쪽.

6) R. North, “David’s Rise: Sacral, Military or Psychiatric?,” *Bib* 63 (1982), 524-44쪽.

7) E. H. Peterson, *First and Second Samuel*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9), 100쪽.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고 싶다는 전갈을 보낼 정도로 다윗과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삼상 16: 22). 그리고 두 번째의 악령으로 인한 지적 능력 장애는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뒤를 쫓는다는 점에서 다윗의 존재를 기억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으로 반박될 수 있다.

이질적인 자료의 다양성이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재고를 넘어서서 저자 겸 편집자의 신학적인 의도를 고려한 해석이 대두되는데 사울의 무지를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가려는 시도가 바로 그 것이다. 그로스 루이스(K. R. R. Gros Louis)는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오는 서로 상충되는 두 이야기는 모순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적인 것이며, 사울과 다윗이 보여주는 관계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피력한다. 먼저 다윗이 사울의 수금 연주자와 무기 드는 자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악령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한 사람인 사울을 구하고, 그의 주변을 지키는 자의 역할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private and personal relationship)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등장은 전사(warrior)로서 골리앗과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왕인 사울을 구하고 민족의 구원자로 나서는 '공적인 관계'(public relationship)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연인으로서의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 위안자인 다윗을 사랑하며 아낀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 7)라는 민족적 영웅인 다윗의 위상은 견딜 수 없다.⁹⁾ 이 분석은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윗의 후속적인 상황의 반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 할만 하다.

브루거만(W. Brueggemann) 또한 관계에 집중하는데 사울에게 결정적인 전투인 그곳에서 낮도 모르는 생소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울의 궁정에서의 다윗의 이상한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다윗은 단연코 사울의 왕가가 중심인 거기에서 '낯선 사람(stranger)'이었다고 말한다.¹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속해 있는 삼상 17장 안에는 의도성이 짙은 긴장감들이 존재하는데,

8) Robert D. Bergen, *1, 2 Samuel* (NAC 7A) (USA: Broadman & Holman, 1996), 199쪽.

9) K. R. R. Gros Louis, "The Difficulty of Ruling Well: King David of Israel," *Semeia* 8 (1977), 20-23쪽.

10)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33쪽.

먼저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골리앗)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으로 이것은 다윗의 승리로 해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으로 오히려 그 승리가 발단이 되어 다윗과 사울사이에 존재하게 된 긴장감이다. 이것은 결코 해결되어진 적이 없다.¹¹⁾ 로톤(R. B. Lawton)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삼상 17장 56-58절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무지 그리고 둘째는 사울이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려고 세 번씩이나 집요하게 이리저리 질문하는 이유이다(55, 56, 58절). 이에 대한 대답으로 로톤은 사울이 그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와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새를 질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²⁾ 이 해석에는 왕좌를 놓고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빼앗을 것인가?"라는 반전되는 관계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질적인 자료의 무분별한 조합이나, 비록 무작위는 아닐지라도 다윗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지키려는 열심이 불일치도 불사했다는 것이나, 심리적인 측면의 해석이나 모두 현재 형태의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인다. 그에 반해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의 반전에 대한 해석은 문맥의 흐름과 이야기 전개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으나 동일한 다른 예들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독선적인 해석에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성경 속에서 동일한 예들을 비교하며 이러한 불일치 속에 내재된 신학적인 의도성을 제시할 것이다.

3. '사울-다윗'대바로-모세의 비교

성경 속에는 출애굽사건이 구원사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러한 '출애굽사건의 형태를 따라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살펴볼 수 있다.¹³⁾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출애굽사건의 전형적인 형태를 몇 가지 요소로

11) 율글, 134쪽.

12) Robert B. Lawton, "Saul, Jonathan and the 'Son of Jesse'," *JSOT* 58 (1993), 41-42쪽.

13) M. Fishbane, "The 'Exodus' Motif/ The Paradigm of Historical Renewal,"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 of Selected Biblical Texts* (New York: Schocken Books, 1979), 121-40쪽;
C. D. Ishbell, *The Function of Exodus Motifs in Biblical Narratives: Theological Didactic Drama* (SBEC 52)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2).

세분화하여 들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은 차후의 사건을 규명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길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음은 오블래쓰(M. D. Oblath)가 제시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요소를 진행과정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¹⁴⁾

- 첫째, 새로운 왕이 백성을 압제하고 도탄에 빠뜨린다.
- 둘째, 한 인물(hero)이 왕궁으로 들어와 자라게 된다.
- 셋째, 그 사람이 광야로 쫓겨나 방랑의 여정을 갖는다.
- 넷째, 왕이 죽은 뒤 그 사람이 새로운 (아들)왕을 대적하기 위해 돌아온다.
- 다섯째, 그 사람이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고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모세와 바로가 얽히고, 사울과 다윗이 얽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의 시절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태동에 버금가는 왕조라는 새 시대의 입구에서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첫째 요소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의 나라으로 빠져들게 하는 원흉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이스라엘을 고통과 압박의 길로 이끌고 이방의 압제(블레셋) 또한 끌어들이게 된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울왕의 궁에서 소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신다.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면 다윗은 사울왕의 딸인 미갈의 남편이 되어 사울의 사위가 된다. 두 사람 다 낮은 신분에서 시작하여 왕가와 가족으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두 인물들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 간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빌미가 되어 사울의 질시에 가득 찬 음모를 피해 광야로 도피하게 된다. 두 사람 다 광야 방랑기간 동안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다. 모세는 십보라를 만나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다(출 2: 21; 삼상 25: 39-42). 넷째,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 바로가 죽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새 바로(아들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 돌아온다. 그리고 다윗 또한 사울이 죽었음을

14) Michael D. Oblath, "Of Pharaohs and Kings—Whence the Exodus?," *JSOT* 87 (2000), 23-42쪽; Yair Zakovitch, "And you shall tell your son...", *The Concept of the Exodus in the Bible* (Jerusalem: Magnes, 1991), 83-84쪽.

듣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 가리이까”라고 묻고 헤브론으로 가리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곳으로 간다(삼하 2: 1).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대적하게 된다(삼하 2: 8-11). 다섯째, 모세가 바로의 모든 대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탈출 시킨 것처럼, 다윗도 결국 이스보셋을 누르고 온 이스라엘을 사울 왕가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습적 통일 왕정을 시작한다.

이 모든 과정이 모세가 걸어갔던 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울과 다윗이 뒤엎혀서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새로운 출애굽이라 부를만하다.¹⁵⁾ 사울은 모세의 사명과 같은 구원자로서의 기대를 듬뿍 받고 왕정을 시작했다(삼상 9: 16). 그러나 그는 불순종으로 얼룩진 행적으로 모세를 닮아가기를 멈추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몰아갔던 악명 높은 바로왕의 행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다.¹⁶⁾ ‘사울-다윗’ 대 ‘바로-모세의 비교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가 바로라는 이방의 왕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다윗은 같은 동족인 사울왕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불운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이(למלך ישראל/요구되어진)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울-다윗의 관계가 이렇듯이 바로-모세의 관계와 문학적, 신학적인 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시대가 동일한 새 시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바로와 모세의 갈등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태동을 향하고 있고,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이스라엘에 왕조의 탄생이라는 새로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전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무지’ 또한 동일한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문학적인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이 역사성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역사를 서술함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관(史觀)은 필수적인 것이다. 역사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그러기에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펼치며 역사가는 출애굽 사건을 마땅히 이루어야 할 전형적인 역사의 모범으로 보며 그 차후의 역사를 해석하고

15) James Nohrnberg, *Like Unto Moses: The Constitution of an Interpret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248-49쪽.

16) Amos Frisch, “‘For I Feared the People, and I Yielded to Them’ (I Sam 15,24) - Is Saul's Guilt Attenuated or Intensified?” *ZAW* 108 (1996), 102-103쪽; Zakovitch, 윗글, 84쪽.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닌, 역사를 해석하는 눈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사울과 다윗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 벌어진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의 결론이다. 물론 그 외의 실제적인 역사나 더 깊은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나 연구방법론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명백한 반 왕정적 입장과 친 왕정적 입장의 대립,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인가, 엘하난인가라는 질문(삼상 21: 19), 그리고 헤브론의 권력자 나발의 진정한 정체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곳에서는 주로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4. ‘사울-다윗’대바로-요셉이스라엘’의 비교

‘안다’와 ‘모른다’라는 관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전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집트와 출애굽이라는 대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안다’와 ‘모른다’로 인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먼저 출애굽은 요셉이라는 인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용모가 준수하고(תָּאֵר; 창 39:6), 하나님의 영(רוּחַ אֱלֹהִים 루아흐 엘로힘; 창 41: 38)에 감동되고, 지혜로운(חָכָם 하삼; 창 41: 39) 그의 존재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그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락에 빠지기도 한다. 이 극적인 기쁨과 고통의 대립선상에 바로 왕이 서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물론이요 세계가 동일한 기쁨과 고통의 상반된 체험을 하게 된다.

■ 요셉을 아는 바로(창 41: 38-45)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רוּחַ אֱלֹהִים 루아흐 엘로힘)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חָכָם 하삼)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엮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 요셉을 모르는 바로(출 1: 8-10)

요셉을 알지 못하는(בְּלֹא יָדוֹ) 로야다)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물론 요셉을 ‘인식하는 바로’와 ‘모르는 바로’는 각각 정확한 이름이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왕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명칭이 동일하게 바로로 통칭되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역사의 갈림길에 선다는 의미에서 이 비교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רוח ה' רַחֵם 루아흐 엘로힘)이 함께하는 요셉의 탁월함을 알고 인정한 바로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까지 요셉에게 맡긴다(세마포 옷, 금 사슬, 버금수레 또한 동일한 권위를 상징).¹⁷⁾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 전역 심지어는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까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존속하게 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간파한 또 다른 바로는 요셉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그것이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든, 혹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¹⁸⁾ 두려움이 외면이 되고, 관계를 더욱더 단절의 세계로 몰아간다. 결국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이집트는 점점 파멸의 길로 향하게

17) V.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 505쪽.

18) J. G. Janzen, *Exodu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7), 17쪽. 켈젠은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이방인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attitude of nonrecognition)을 취한 것으로 본다.

된다. 그런데 이 길을 사울왕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 또한 끈끈한 만남으로 시작하여, 점점 소원한 단절의 관계로 나아간다. 사울왕은 물론 온 이스라엘까지 용모가 준수하고(אֲנָחְנִי 토아르; 삼상 16: 18), 여호와와 영(רוּחַ יְהוָה 루아흐야훼; 삼상 16:13)이 함께하며, 지혜롭게 행하는(לָכֵן 사칼; 삼상 18: 5) 다윗의 존재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다.¹⁹⁾ 그러나 그의 부재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게 한다.

■ 다윗을 아는 사울(삼상 16: 18, 21-23; 17: 51-52)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אֲנָחְנִי 토아르)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린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삼상 16: 18, 21-23)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삼상 17: 51-52)

■ 다윗을 모르는 사울(삼상 17: 55; 18: 7-8, 12-15)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אֲנִי אֵינִי אֹמֵר 암아다티) (삼상 17: 55)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

19) 현 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26쪽. 지혜문학인 잠언에서는 אָנַח(하감/지혜롭게 하다)과 לָכֵן(사칼/지혜롭게 하다)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바로와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바로가 두려움으로 “지혜롭게 하자”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두려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삼상 18: 7-8)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כָּל־חָכָם)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כָּל־חָכָם)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삼상 18: 12-15)

사울은 ‘여호와와 영’(רוח־יהוה)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고통이 완화되며,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기 시작하고, 그의 옆을 떠나 는 것조차 꺼려하며 붙들어 두려운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군복, 투구, 갑옷, 칼까지 다 내어 줄 수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집안, 그의 백성들까지 생명을 지키는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정도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는 전환점에 이르자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한다.²⁰⁾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로 인해 자신의 나라, 왕위의 안전을 두려워했던 바로처럼, 사울 또한 날로 대단해져 가는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이처럼 바로와 사울이라는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을 때 우호적인 만남의 관계로 접어든다.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는 쉽게 친밀함이라는 ‘얕은 관계’로 나아가지만, 자신이 상대방으로 인해 위축되고, 공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이 촉발되기 시작하면 ‘안다’라는 관계를 청산하고 ‘모른다’로 전향한다(아브넬의 ‘모르는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이다). 심지어 오히려 인면이 없었을 때보다 더 잔혹하게 그를 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출애굽적인 요소에 대한 유비관계는 친밀함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20) Lawton, 윌슨, 41-42쪽.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80쪽. Alter는 주인공의 이름이 아닌 관계적인 명칭이 사용될 때는 그 주인공에 대한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들려지지 않고 오직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주종관계만 제시된다.

되어버린 존재를 제거하려는 방법론에서 바로와 사울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는 날로 수적으로 번성해가며 강대해지는 이스라엘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지혜(חָכְמָה 하카마)를 동원해 이 성장을 막으려한다(출 1: 10).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수적비교인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출 1:9)는 바로의 두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포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씨를 근절시키려는 동기로 작용한다. 사울 또한 자신과 다윗의 수적비교인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비교와 더불어 날로 그 명성이 상승하고 있는 다윗으로 인해 불쾌감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진행해 나간다.²¹⁾ 이들의 계획은 각기 세 단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유사성 또한 현격하다.

21) 바로와 사울의 반응은 자신들의 지위와 나라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 1: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삼상 18: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 | 바로의 계획 | 사울의 계획 |
|---|--|---|
| 첫째 | ○ 방법: 개인적인 시도(출 1: 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함 | ○ 방법: 개인적인 시도(삼상 18: 10-15)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지고 실패하자 자신의 면전에서 떠나게 하여 백성의 천부장을 삼고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함 |
| | ● 결과(출 1: 12)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피어나감으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함 | ● 결과(삼상 18: 16) 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 앞에서 출입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됨 |
| 둘째 | ○ 방법: 비밀스럽게 타 민족을 통해(출 1: 15) ²²⁾ 에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에게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함 | ○ 방법: 비밀스럽게 타 민족을 통해(삼상 18: 17-30)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 죽이려고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려면 신부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백 개를 원한다고 함 |
| | ● 결과(출 1: 19)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은 에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가기 전에 해산하였다 함 *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ᄇᆞᆫ: 야레) | ● 결과(삼상 18: 27, 30)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 이백을 죽이고 포피 이백 개를 가져다주고 사울의 사위가 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됨 *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함(ᄇᆞᆫ: 야레) |
| 셋째 | ○ 방법: 온 백성을 동원(출 1: 22)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면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리라고 함 | ○ 방법: 온 백성을 동원(삼상 19: 1)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함 |
| | ● 결과(출 2: 1-10) 모세가 탄생하고, 결국은 바로 자신의 딸에 의해 나일 강에서 구원되어, 자신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라게 됨 | ● 결과(삼상 19: 2-17)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결국 미갈이 다윗의 탈출을 돕는다. |
|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모세와 다윗이 궁중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 그렇게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사람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든다. ²³⁾ | | |

이상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자나 혹은 그의 계획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상반되는 역사의 흐름을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건, 이것은 단순한 대결의 승리나, 전쟁의 승리 정도가 아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인생이 상승과 추락이라는 점에서 교차되는 역전의 순간이다.²⁴⁾ 사무엘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한나의 기도’(삼상 2: 1-10)처럼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순간”이다(삼상 2: 8).²⁵⁾ 이 거시적 구조(사무엘서 전체)와 미시적 구조(사울과 다윗)의 극적인 교차점에서 모순 같은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단절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본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점을 표시하는 의도적인 문학적 기교인 것이다. 한 사람은 ‘삶의 세계’(순종)로, 다른 사람은 ‘무지의 세계’(불순종)로 향하며,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이 새로운 역사를 무지로 위장하여 무효화 시키려 한다. 모든 것을 모르는 것으로 물어 버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바로가 요셉과의 관계에 따라 생명이냐 파멸로 나아갈듯이, 다윗과 사울의 삶에 갈림길이 펼쳐지며 각각 생명과 죽음이라는 길로 향하여 나아간다.

22)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4), 14쪽.

23) Nohrnberg, *Like Unto Moses*, 248-49쪽; Lawton, *읽기*, 35-46쪽; David Damrosch, *The Narrative Covenant: Transformations of Genre in the Growth of Biblical Literatur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7), 200쪽. Damrosch 또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몸부림 치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왕가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제공하는 것에만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24) J. P. Fokkelman, “Saul & David Crossed Fates,” *BR* 20 (1989), 29쪽.

25) W. Lee Humphreys, “The Tragedy of King Saul: A Study of the Structure of 1Samuel 9-31,” *JSOT* 6 (1978), 18-27쪽; David Jobling, “Saul’s Fall and Jonathan’s Rise: Tradition and Redaction in 1Samuel 14:1-46,” *JBL* 95 (1976), 367-376쪽; Niels Peter Lemche, “David’s Rise,” *JSOT* 10 (1978), 2-25쪽. ‘한나의 기도’(삼상 2: 1-10)는 사무엘서 전체 속에서 ‘다윗의 노래’(삼하 22장)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예기적인 기능’(proleptic function)을 하고 있다. 교만한 자들이 결국은 망하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 인물들의 삶을 뒤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전혀 예외가 없다. 사무엘서는 엘리 가문의 추락과 맞물려 사무엘이 상승하고, 사울의 추락과 더불어 다윗이 상승하며 또한 다윗의 교만과 죄악이 그의 추락을 몰고 오는 지그재그식의 구조를 보이며 ‘한나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

5. '나발-다윗'대사울-다윗의 비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안다'와 '모른다'라는 상반된 태도로 인해 사울과 같은 운명을 겪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 삼상 25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나발'(נָבָל 어리석음, 미련한)로 그의 이름의 뜻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는 어리석음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כָּלֵל 세켈), 아름다운(יָפִי תואר) 여성으로 소개된다(삼상 25: 3).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도 '바로-요셉이스라엘'과 '사울-다윗'의 관계성 속에 등장했던 중요한 요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의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나발은 심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된다. 그는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나 되는 가나안 정복의 명장 갈렙의 후손쯤 되는 유다 지파의 부유한 유지였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풍요로운 축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생필품의 후원을 부탁했다. 다윗은 당연히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이유는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양들을 돌볼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산적들과 해로운 짐승들이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25: 7).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사건의 부드러운 전개를 뒤흔들어 놓는다: "나발아...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לֹא יָדָעְתִּי לֹא יָדָעְתִּי לוֹא יָדָעְתִּי)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 25: 10-11).

나발의 이 응답 속에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풍겨져 나온다. 첫째는 그가 분명 다윗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까지 퍼져 나갈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삼상 21: 11; 29: 5). 그 당시 이미 찬양의 주제와 속담이 되어버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누가 몰랐을까? 이것은 나발이 내뱉은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 속에 다윗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²⁶⁾ 하지만 그에게 있어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

26) 유 연희, "아비가일의 남자들: 삼상 25장 다시 읽기," 『구약논단』 35 (2010), 104-105쪽.
유 연희는 나발의 이 유일한 발언은 그의 바보스러움의 표상이 아닌 그의 사울 편향적인 정치적 입장과 말솜씨를 잘 보여준다고 본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는 수사학적 질문은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발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관이나 사위의 위치가 아니라, 단지 일개 이름 없이 도망 다니는 종일뿐이다. 다윗에 대한 멸시가 가득 담겨져 있다. 둘째는 나발이 애써 다윗의 존재를 외면하려 한다는 점이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선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관계의 위기는 이미 바로와 요셉(출 1: 8)/이스라엘의 관계(출 5: 2), 사울과 다윗의 관계(삼상 17: 56-58) 속에 명백히 드러났고, 이제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동일한 선상 위를 걷고 있다. 나발이나 바로나 사울이나 동일하게 모른다고 외침으로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이나 다윗에게서 오직 ‘중’의 정체성 밖에는 볼 수가 없다(출 1: 11; 삼상 17: 58; 25: 10)²⁸⁾ 도움을 받는 입장일 때에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자신이 도움을 베풀어야 할 때나 자신의 위치가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할 때에는 모르는 관계를 자처하는 것이다. 나발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도움을 베풀어야 할 때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며 “나는 알지 못한다”(לֹא יָדָעְתִּי 로-아다티)라고 잡아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바로와 같이 왕(מֶלֶךְ 멜레크)처럼 호령하는 나발(삼상 25: 36)의 ‘완악함’(אָכַז 카세)의 소치이다(삼상 25: 3; 출 7: 3; 13: 15).

나발은 또한 사울처럼 악(רָע 라아/학대, 해)으로 선(טוֹב 토바)을 갚으려 하고 있다(삼상 25: 21). 이것은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버가일에게 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드러났다. 그들이 진실로 우리를 선대하였음에(טוֹב 토바) 틀림없는데(삼상 25: 15),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윗이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רָע 라아/악, 학대; 삼상 25: 17)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울도 나발과 같이 다윗을 철저히 무시했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였다(삼상 24: 17). 이처럼 나발은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울의 ‘또 다른 자아,’ 즉 ‘분신’(alter ego)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옛날 바로의 모습

정치적인 입장정리가 끝난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 언급한다. 그리고 성경에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17번 나타나는데 삼하 23장 1절 ‘다윗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지적한다. 참조, J. Lozovyy, *Saul, Doeg, Nabal, and the "Son of Jesse": Reading in 1 Samuel 16-25*, (New York: T & T Clark, 2009), 123쪽.

27) Jon D. Levenson, “1 Samuel 25 as Literature and History,” K. R. R. Gros Louis (ed.),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vol. II (Nashville: Abingdon, 1982), 224-25쪽. 그가 베풀 선이라야 그의 아내 아버가일이 다윗에게 바친 양 다섯 마리, 포도주 두 가죽부대, 떡 이백덩이, 붉은 곡식, 건포도 등이다(삼상 25: 18). 자신의 재산에 비할 바 없는 것과 목숨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 그의 어리석음이다.

28) Levenson, *윗글*, 228쪽.

또한 보이고 있다.²⁹⁾

그런데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힐 그 순간에 그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제공된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출현이다. 어리석은 자 나발을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라는 그녀의 음성은 다윗이 품었던 본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잃었던 시각을 회복케 하는 위력이 있다(삼상 25: 23-31). 다윗은 기꺼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청을 응낙한다. 아비가일이 그 모든 정황을 나발에게 전했다. 나발은 낙담하여(“마음이 죽다”) 몸이 돌처럼 굳었고, 그 후 열흘 뒤에 왕처럼 호령하며 잔치를 즐기던 나발의 삶을 여호와께서 바로를 치시듯이 ‘치시매’(כָּחַ נָכַח; 출 8: 2; 12: 23; 삼상 25: 38), 그가 죽었다. 나발도 바로처럼 자신의 편이 되리라 여겼던 여인의 저항에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운명의 전환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해한다면 이 불일치처럼 모순 되는 이야기가 두 사람의 운명의 극적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성경 읽기의 부드러운 흐름을 파괴하는 듯한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 55-58)은 기나긴 시간 주석가들의 연구열을 자극해 왔고, 여러 가지 해석적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역사 비평학이 대두되던 시절에는 이질적인 자료층이나 전승의 다양성으로 인한 요인에 손을 들어 주었으나, 비평학 이후의 연구는 전체의 문맥의 흐름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동일한 예를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해석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출애굽의 전형적인 모형’이라는 틀 안에서 ‘바로-요셉/모세/이스라엘 이야기’와 ‘사울-다윗’ 이야기의 유비를 ‘성서 간대화법’(intertextuality)으로 풀어감으로 ‘얕과 친밀감’과 ‘무지와 단절’이라는

29) Joyce Baldwin, *1 &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8), (Leicester: InterVarsity, 1988), 147쪽; Bergen, 윗글, 251-52쪽; Ronald Youngblood, *1, 2 Samuel*,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752쪽; 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129-30쪽.

대비가 운명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신학적이며 문학적인 기법임을 드러낸다.

요셉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게 모든 권위까지도 위임하였던 바로는 변영의 길로 나아가고, “요셉을 모른다”는 슬로건으로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시도한 새 바로는 그로 인해 철저한 파멸을 경험한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고, 그 반대로 다윗과의 관계의 단절을 시도할 때 그는 철저한 파멸로 나아간다. 바로 이 전환점에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차후의 이야기는 바로처럼 사울이 적대적인 대상이 되어버린 상대(다윗)를 제거하려는 세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첫째로 바로가 개인적인 시도로 자신의 국고성을 짓도록 이스라엘을 고역의 노동으로 혹사하고, 사울은 창을 던져 스스로의 무력으로 다윗을 죽이려한다. 둘째는 자신 스스로의 방식이 무효화 되었을 때 바로나 사울이나 동일하게 타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동원하고, 사울은 블레셋 인들을 이용한다. 이도 실패하자 세 번째의 단계에서는 둘 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자식들을 포함) 살인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그로인해 결국 모세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궁에서 자신들의 딸의 비호를 받으며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는 것을 목격할 뿐이다.

이러한 사건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전후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이 성경의 저자 겸 편집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전형적인 모험’ 속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도적인 전개라는 사실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이것은 단순한 대결의 승리나, 전쟁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인생이 극적으로 교차되는 역전의 순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극적인 교차점에서 모순 같은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단절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본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점을 보이려는 의도성 짙은 문학적 기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다와 모른다’로 인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운명의 전환을 보이는 유사한 사건인 ‘나발-다윗’ 이야기 또한 제시될 수 있다.

7. 참고문헌

- 김 재구, “요셉 이야기 속에서 유다-다말 이야기의 문학적 기능,” 『협성신학논단』 7 (2005), 258-98쪽.
- 왕 대일, “성서해석에 있어서 Intertextuality의 활용—레 17: 11, 14의 경우,” 『구약논단』 9 (2000), 9-38쪽.
- 유 연희, “아버지가일의 남자들: 삼상 25장 다시 읽기,” 『구약논단』 35 (2010), 98-118쪽.
- 현 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Baldwin, Joyce, *1 &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8), (Leicester: InterVarsity, 1988).
- Bergen, Robert D., *1, 2 Samuel* (NAC 7A), (USA: Broadman & Holman, 1996).
- Brueggemann, W., *First and Second Samuel*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4).
- _____,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Damrosch, David, *The Narrative Covenant: Transformations of Genre in the Growth of Biblical Literatur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7).
- Fishbane, M., “The ‘Exodus’ Motif/ The Paradigm of Historical Renewal,”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 of Selected Biblical Texts*, (New York: Schocken Books, 1979). 121-140.
- Fokkelmann, J. P.,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Amsterdam: Van Gorcum, 1975).
- _____, “Saul & David Crossed Fates,” *BR* 20 (1989), 20-32쪽.
- Frisch, Amos, “For I Feared the People, and I Yielded to Them’ (I Sam 15,24)—Is Saul’s Guilt Attenuated or Intensified?,” *ZAW* 108 (1996), 98-104쪽.
- Garsiel, Moshe,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 Gros Louis, K. R. R., “The Difficulty of Ruling Well: King David of Israel,” *Semeia* 8 (1977), 15-33쪽.
- Gunkel, H., *Genesi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
- Humphreys, W. Lee, “The Tragedy of King Saul: A Study of the Structure of ISamuel 9-31,” *JSOT* 6 (1978), 18-27쪽.
- Ishbell, C. D., *The Function of Exodus Motifs in Biblical Narratives: Theological Didactic Drama* (SBEC 52),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2).

- Janzen, J. G., *Exodu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7).
- Jobling, David, "Saul's Fall and Jonathan's Rise: Tradition and Redaction in 1 Samuel 14:1-46," *JBL* 95 (1976), 367-376쪽.
- Klein, R. W., *1 Samuel*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3).
- Lawton, Robert B., "Saul, Jonathan and the 'Son of Jesse,'" *JSOT* 58 (1993), 35-46쪽.
- Lemche, Niels Peter, "David's Rise," *JSOT* 10 (1978), 2-25쪽.
- Levenson, Jon D., "1 Samuel 25 as Literature and History," K. R. R. Gros Louis (ed.),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vol. II (Nashville: Abingdon, 1982), 220-42쪽.
- Lozovyy, J. *Saul, Doeg, Nabal, and the "Son of Jesse": Reading in 1 Samuel 16-25*, (New York: T & T Clark, 2009).
- McCarter, P. Kyle, *1 Samuel* (AB 8),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0).
- Nohrnberg, James, *Like Unto Moses: The Constitution of an Interpret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 North, R., "David's Rise: Sacral, Military or Psychiatric?," *Bib* 63 (1982), 524-44쪽.
- Oblath, Michael D., "Of Pharaohs and Kings—Whence the Exodus?" *JSOT* 87 (2000), 23-42쪽.
- Peterson, E. H., *First and Second Samuel*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9).
- Skinner, John, *Genesis* (ICC), (Edinburgh: T & T Clark, 1930).
- Smith, H. Preserved, *The Books of Samuel* (ICC), (Edinburgh: T & T Clark, 1899).
- Tull, Patricia,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 Westermann, C., *Genesis 37-50: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 Youngblood, Ronald, *1, 2 Samuel*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Zakovitch, Yair, "And you shall tell your son...", *The Concept of the Exodus in the Bible* (Jerusalem: Magnes, 1991).

검색어

성서간대화법

출애굽 모형

사울

다윗

나발

A Theological Reconsideration of Saul's Ignorance of David(1Sam. 17: 55-58)

Jae Gu Kim, Ph. D.

Lecturer, Department of Theology

Hyup Sung University

At first glance, the incident of Saul's unrecognition of David in 1Sam. 17: 55-58 seems to break the flow of the storyline because Saul has already well known David. Many scholars have tried to solve this inconsistency, mainly in terms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t sources and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aul and David without presenting any other comparable examples. But they still leave several unsolved questions behind, especially about the reason the author/redactor did not harmonize this inconsistency and the existence of other similar examples in the Bible. This paper is to venture to answer these questions, using the method of intertextuality. This method reveals there

is the prototype of the Saul–David story, that is, the Exodus story. Thus the ‘Exodus Paradigm’ is utilized to compare ‘Saul–David story’ with ‘Pharaoh–Joseph/Moses/Israel story.’

As Pharaoh is saved when he recognizes Joseph, so Saul is also relieved from his trouble when he recognizes David. But when both Pharaoh(different one) and Saul fail to recognize Joseph and David respectively, they fall into despair and eventually into utter destruction. The unrecognition must be politically intentional severance of relationship to both troubled ones with the fear of the gradual greatness of Israel and David. Saul's unrecognition of David alludes to the future conflict between him and David. Thus, it is not a literary inconsistency but an intentional literary technique to adumbrate what is to come after.

Further proofs can be presented by the more elements from the Exodus motif. After this unrecognition, Pharaoh and Saul with fear of the greatness of Israel and David respectively try to eliminate their counterparts by the same three steps. Firstly, as using his personal attempt, Pharaoh let the Israelites undergo hard labor building his store cities, so Saul with his spear attempts to kill David. When their attempts fail, both depend on the foreigners to kill their enemies(Pharaoh–Hebrew midwives and Saul–Philistines). When it fails too, they command their people to kill their enemies. But eventually Moses and David are saved and become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Likewise, the Exodus Paradigm reveals that the Saul–David story is written in the pattern of the Exodus motif, demonstrating recognition brings life and unrecognition whether by accident or design brings disaster. Thus, Saul's unrecognition of David is intended to function the turning point of the future sever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ul and David.

Keywords

Intertextuality

Exodus Paradig

Sau

Davi

Nabal

■투고일: 2010년 12월 15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

82 ●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